

사람과 사회구조 동시에 변화해야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 '불교사회학' 펴내



사회 각 현상을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사회학이 불교계 내에서 불교사회학이라는 분야로 개념화 된 지는 오래됐다. 하지만 한국에서 이에 대한 학문적 논의와 연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한국불교계 최초의 불교사회학 연구서가 출간됐다.

유승무 교수(중앙승가대학교 포교사회학과)가 펴낸 불교사회학 개론서 <불교사회학>(박종철출판사)이 그것이다.

"기존 종교사회학계는 서구의 경험, 가톨릭에 기반한 종교사회학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서양 종교사회학 교재를 사용해 불교의 관점에서 바라본 사회학 교재는 한 권도 없는 현실입니다."

이번 <불교사회학>은 유승무 교수가 1991년 중앙승가대 교수로 부임한 이래 20여 년간 불교사회학 분야를 개척 온 성과를 집대성한 것이다. 유 교수는 책 출간으로 불교사회학이라는 연구영역이 활성화되길 기대했다.

유승무 교수는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강의를 시작하며 첫 강의로 '불교사회학'을 맡았지만 교재가 없어 가톨릭 신부가 쓴 종교사회학 교재를 쓸 수밖에 없었다. 이에 유승무 교수는 승가대 강의를 비



를 수정해 연구를 시작했다.

서양 종교사회학은 베버, 벨라, 기어츠 등처럼 종교를 신념체계로 실제화하거나, 뒤르켐이나 엘리아스처럼 실제적으로 정의했기 때문이었다. 또 마르크스나 프로이트처럼 종교를 이데올로기로 실제화하거나, 버거처럼 종교를 개인과 개인 사이의 의미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규정한다.

유승무 교수는 서양 종교학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불교의 '연기법적 접근'을 통해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시도했다.

유 교수는 책에서 기존 종교사회학 연구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했다. 4~5장에서 진행되는 베버의 대승불교론과 벨라의 도쿠

가와 종교 등의 연구, 제6장의 마르크스주의와 불교의 관계가 그 것이다. 제7장에서는 참여불교 흐름에서 나타나는 사회학의 가능성을 점검했다.

이를 통해 제8장에서 저자는 결론을 내렸다. 사람과 사회구조가 동시에 변화해야 한다고 유 교수는 화엄철학의 육상원융의(六相圓融義)를 설명하며 상즉상입이라는 총체성을 강조했다. 유승무 교수는 "불교안의 상호동일성 원리이자 상호침투성 원리인 '상즉상입(相即相入)'으로 사회구조와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승무 교수는 <또 하나의 한국사회>와 <한국불교의 사회학적 이해>의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 이 책들은 불교의 사회적 작용과 그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정리한 것들이다. 불교가 사회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나가야 하는지 대사회적 역할에 대한 심도깊은 연구가 있어야 한다는 유 교수의 뜻이다.

유 교수는 한국사회의 변화에 있어서 불교의 역할들을 밝히는 작업이 향후 과제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노덕현 기자

대장경 홀로그램으로 만나다

문화재청, 2011년 사업계획... 문화재119 운영도

초조대장경 조성 1000년을 맞아 문화재청이 대장경 홀로그램 제작을 추진한다.

문화재청(청장 이강우)은 2011년 국외 문화재 환수, 문화유산 홀로그램 제작, 문화재 훼손 신고전화(문화재 119) 운영 등 민족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2011년 12월을 예정해 홀로그램으로 제작되는 문화재 중 국보 제32호 팔만대장경은 대장경의 우수성과 정교함을 대중들이 느끼게 한다는 의미에서 불교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밖에 문화재청은 국외문화재 환수를 추진하기 위해 4월 경 국외문화재 환수를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한다.

또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체계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220억 원을 기존 문화재보수정비 사업비에서 분리해 독립적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또 세계유산 관련 문화재보유법 확대 개정안을 마련하며 전문가 회의도 개최한다.

문화재 훼손 신고전화 '문화재 119'를 운영해 긴급보수사업을 체계화 시킬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불교학보' 제57집 원고 모집

불교문화연구원(원장 박인성)은 2월 28일에 <불교학보> 제57집을 발간한다. <불교학보>는 1963년 창간된 학술진흥재단 등재지로서 매년 3회 발간되고 있다.

이번 제57집은 불교학 전반에 관한

자유주제로 원고 마감은 1월 20일까지다. 분량은 원고지 120매 내외(각주분량 포함)로 한글요약은 500자 내외, 영문요약은 A4용지 1매 이내다. (02) 2260-3768

노덕현 기자

'불교미술사학' 학진 등재후보지 선정

통도사성보박물관 불교미술사학회(학회장 현근, 통도사 성보박물관장)가 간행하는 <불교미술사학>이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됐다.

불교미술사학회는 국내외 불교미술사와 관련한 회화 조각 건축 공예 보존수

복 전문가 500여 명의 모임으로 2003년 10월 17일 창립됐다.

현근 회장은 "불교미술사학의 패거로 향후 불교미술 연구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격변의 소용돌이 속 19인 승려들의 삶

김영진 인하대 연구교수, '근대 중국의 고승' 펴내

19~20세기 중국은 격변의 시대였다. 중국은 불과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편전쟁, 청일전쟁, 신해혁명, 군벌의 난립, 5·4 운동, 북벌전쟁, 중일전쟁, 국공내전, 중국 공산화, 대약진 운동 등 많은 전쟁과 혁명들을 겪어야 했다. 민초들의 삶 역시 고단하고 각박하기만 했다.

1000년을 이어온 중국 불교에도 자연스럽게 위기는 찾아왔다. 스님들은 70만 명에 달했지만, 중국 불교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항상 움크리고 있는 법이다. 세상을 외면한 채 목숨만 겨우 부지하는 스님도 있었지만, 반대로 봉건적 습속에 젖어있던 불교계를 바꾸기 위해 노력했던 개혁적인 스님들도 있었다.

김영진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HK연구교수는 저서 <근대 중국의 고승>에서 근대중국에서 활동한 19명의 고승의 생애와 사상을 조명했다. 김 교수는 >선승과 수행

의 부활 >승려교육과 불교개혁 >종파불교의 계승과 학승 >밀교열교와 티베트 불교 >정토 신앙과 염불법문 등 5가지 주제로 나누어 이들을 삶을 이야기했다.

중국 천태종의 부활을 맛보게 했던 디센 스님(諦閑, 1858~1932)은 선승들을 모아 선방을 열고, 무문관 수행을 했으며, 불교 혁신의 선봉자였던 타이위 스님(太虛, 1890~1947)은 무장불학원(武昌佛學院)과 민남불학원(閩南佛學院), 한장교리원(漢藏教理院) 등 교육기관을 세워 승려 교육과 불교연구에 매진했다.

또한 청대에 이르러 거의 명맥이 단절됐던 밀교는 당시 일본불교의 소개와 밀교승의 도래를 통해 다시 관심이 고조됐다. 몇몇 스님은 일본에 유학해 밀교의 계를 받아와 중국에 밀교를 부흥시켰다. 밀교의 부흥은 다시 티베트 불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티베트 유학승이 출현하게 됐다.

그 대표적인 이가 바로 파준 스님(法尊,



1902~1980)이다. 스님은 중국에 티베트 불교를 소개하고 티베트 불전을 소개하는 등 정력적인 활동을 펼친다.

이밖에도 인광 스님(印光, 1861~1919)은 수십 년간 염불수행을 통해 중국사회에 깊은 울림을 주었으며, 위안잉 스님(圓瑛, 1878~1953)은 참선과 염불수행을 결합해 사람들을 수행을 길로 이끌었다.

김영진 교수는 "붓다의 이야기만으로 불교를 구성할 수는 없다. 우리가 비록 꿈꾸거리며 <금강경> 한 구절이라도 믿을 수 있는 깨달은 수많은 불교인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며 "중국의 수십만 명에 달하는 고승들 중 19명의 고승들이 중국 불교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 이 고승들을 통해 근대 불교를 다시 더듬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soe84@buddhapia.com

불교+사상의학

불문연, 19일 세미나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박인성)은 1월 19일 동국대 학림관 세미나실에서 '치유를 위한 불교의 마음챙김과 사상의학의 융합연구'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2010년 한국연구재단의 '학제간융합연구지원사업'에 선정돼 2010년 9월부터 진행해온 연구 결과가 최종 결집 돼 발표될 예정이다.

불교문화연구원 융합연구는 불교의 '마음챙김(mindfulness)'과 한의학의 '사상의학(四象醫學)'을 융합해 불교학과 의학의 다양한 소통과 심신치유를 위한 학문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

불교문화연구원 연구팀(연구책임자: 박성식, 대학원 한의과 교수)에는 불교학 7명, 한의학 3명의 교수들로 구성되었으며 '불교와 의학과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2차례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노덕현 기자

제1회 육조 혜능 학술대회 성료



제1회 육조 혜능 학술대회가 구암 29일 총남대 인문대학 문원강당에서 대한 호국불교 소림선종(방장 석연화) 주최로 불행했다.

김부천 원광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학술대회는 세계불교법륜종법 스님, (사)한국화쟁회 이사장 정암 스님, 대한불교 총남종청암 스님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석연화 방장의 개회사에 이어진 주제발제에서 김부천 총남대 철학과 교수는 '육조단경과 혜능의 선사상'을 이덕진 창원전문대 교수는 '혜능의 선법이 한국불교에 끼친 영향'을 발표했다.

노덕현 기자

제1회 佛書藝大賞展

전국 공모

덕승총림 수덕사 제3대 방장 원담 큰스님의 주모일(음력 2월 11일)을 맞이하여, 탈속한 선필과 선사상을 기리며 아울러 역량있는 신인작가에게 작품활동 지원의 성격을 담아, 제1회 원담 서예상을 제정, 공모하오니 유능하고 참신한 작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전시장소 | 수덕사 선 미술관

- 공모부문 _ 서예(한글, 한문)
- 전시기간 _ 2011년 3월 15일 ~ 4월 15일
- 시상식 _ 2011년 3월 15일 오전 10시
- 원서교부 _ 2011년 1월 5일~2월 1일까지 (수덕사 홈페이지 www.sudeoksa.com)

주최 | 수덕사 선 미술관
주관 | 원담 서예상 운영위원회
후원 | 덕승총림 수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품접수 2011년 2월 15일 까지 접수처 수덕사 선 미술관 (주소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20번지) 출품수 1점(단, 출품료는 없음) 작품규격 화선지 1/2절 (가로는 배접하여 접수하고, 세로는 족자로 제작하여 접수) 심사및발표 심사는 본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 저명한 작가와 명사로 하며 발표는 2월 28일 홈페이지와 개별 통보한다. 시상및시상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상 1명 : 5백만원 ▶ 최우수상 1명 : 3백만원 ▶ 우수상 2명 : 각 1백만원(2백만원) ▶ 특선 및 입선 : 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과 최우수상 작품은 본 주최 측에 귀속되며 수덕사 선 미술관에 소장한다. ※ 단, 우수상 이상 입상자는 증빙자료 제출 또는 시상전에 출석하여 회초할 수도 있다. ▶ 특선 _ 본 서예상 공모 입상 작품은 1개월간 수덕사 선 미술관에서 전시하며 도록을 제작 배포한다. ▶ 반출 _ 출품한 모든 작품의 권리는 수덕사 선 미술관측에 귀속된다. 단, 반환을 원할 경우 본인이 직접 찾아가야 한다. ▶ 기타 _ 본 서예상 공모는 역량 있는 신인 작가의 작품활동 지원책으로 재정 후원의 성격을 담고 있다. ※ 자세한 사항은 수덕사 선 미술관 사무국(041-338-9900)으로 문의 바람 ※ 佛書藝는 圓潭 큰스님
---	---